다중환 엔트로피 현상

근대 물리학이 제공한 격렬한 논쟁은 열역학 제2법칙에서 정의한 엔트로피 라는 개념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독립된 물질계에 있어서는 에너지로 재 가용할 수 없는 물질의 양 즉 엔트로피는 항상 최대가 되려고 하며 자발적으로 감소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이론의 창시자인 위너(N. Wiener)가 이 개념을 그의 이론에 적용하여 정보의 측정에서 엔트로피를 불확실성으로 대입하여 양적접근을 시도한 데 있다. 엔트로피는 다시 지식으로 가용될 수 없는 지식의 양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최대가 되려고 하며 스스로 파괴할 지언정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 원용하면 도서관의 정보는 엔트로피를 최대로 증가할 지언정 스스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 도서관이 화석화되어 바벨탑의 상징물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다니엘 벨의 독설은 엔트로피의 개념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확실한 도서관은 하나의 엔트로피環 구조 속에 있는 듯하다. 그것은 대사회적 또는 대 학문적 연계가 없이 독립하여 논리하며 독존적으로 사회적필수장치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발전은 도서관의 이론이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무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보수학이나 데이터 베이스 이론이나 정보통신이론까지도 도서관이 그토록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하는 목록이론이나 분류이론과는 무관하다. 도서관을 사회적 통신장치로 수용하려는 의도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정보업자를 중요한 사회기구로 등장시키고 있다. 도서관은 결국 독립된 폐쇄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며 언제나 최대가 되려는 엔트로피의 들레속에 투옥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맥스웰(J.C. Maxwell)은 엔트로피의 법칙은 하나의 독립된 계에서 적용되는 일종의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에 적용된다는 유명한 수문장이론을 제기하였다. 그것이 개방시스템(open system)인 경우에는 원자핵의 속도인자를 변용할 수 있는 외부인자를 수용함으로 엔트로피는 제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대로라면 도서관도 대사회적 통로를 개척하여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또한 학문적으로 횡적연계를 시도하여 복합구조를 구축한다면 엔트로피는 제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서는 데이타 베이스 이론에 참가하여야 하며 수학적 이론에 의한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론을 컴퓨터학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학자 중에는 사회적 정보이론의 변용현상을 진단 분석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론

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진부한 교조에 의한 엔트로피환속에 속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상은 이 속에서도 또 하나의 이중 엔트로피 환을 만들고 있다. 도서관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조직은 전부, 하나의 학벌이라는 환구조를 형성하고 외부의 참여를 극도로 방어한다. 조직의 장은 절친하고 후견자임을 자처하는 선배가 서열에 따라 되고 하부조직은 선배의 뜻을 거슬리기를 극도로 회피하는 후배들로 구성된다. 안건의 판정은 그 조직원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결코 가치체계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의 분담은 선후배끼리 사이좋게 자천하고 자담하라. 조직원간에는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반대론자는 철저하게 배제하라. 자신의 선사격인 교수의 이론은 교조다.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는 어떤 경우이건 수용해서는 안된다. 세를 형성하여 이에 반대하는 무리에 대하여서는 위협한다. 지나간 과거 따위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가급적이면 타인의 가치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야 집단의 가치가 우선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번엔 자신속에 폐쇄적이며 자멸적인 엔트로피환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의 다중화된 엔트로피환을 형성한다.

인간에 있어서 진실이란 어떻게 한사람의 반대라도 이를 검토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밀(J.S. Mill)의 자유론은 찬란한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에 의한 행위를 정의하려 한 것이다. 도서관계가 이중의 엔트로피환구조속에 있다는 주장은 세에 들지 못한 반대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계에 가중되고 있는 多重엔트로피環을 돌파하지 않는한 발전은 없을 것이다.

(현규섭/공주대학교 도서관교육과 교수)